

전주시 - 가나자와시 문화 협력 강화

김승수 시장,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참석... 일본 가나자와시장과 합의를 서명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인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 체결 15주년을 맞아 문화 분야 교류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전주시와 가나자와시는 지난 2002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로 전통공예 등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민간교류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3일 일본 가나자와시청에서 열린 '전주-가나자와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도시 간 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아마노 유키요시 가나자와시장,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송상준 부의장, 강동하 운영위원장,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 이명연·허승복·서난이 의원, 구로자와 가즈키 의장을 비롯한 가나자와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그간 추진해 온 전통공예 교류 외에도 새로운 분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판소리와 전통무용 등과 같은 전통예능분야의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민간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각각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와 공예창의도시로 지정된 양 도시는 창의도시 등록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아파치 헬기에 장전되는 헬파이어 미사일 13일 군산 앞바다 직도사격장에서 육군 항공전시령부가 아파치(AH-64E) 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전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이와 관련, 김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교류단은 일본 가나자와시의 공식초청을 받아 지난 12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가나자와시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교류단은 공식행사 후에는 가나자와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올해 전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도시대전에 참가한 우미미라이 도서관과 도시재생의 선구적 사례로 널리 알려진 가나

자와 시민예술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장인을 양성하고 있는 장인대학교와 21세기 미술관 등을 시찰하며 가나자와와 교류분야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시와 가나자와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한국과 일본의 대표문화도시"라며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양도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노 유키요시 가나자와시장은 "양시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왔다"라며 "오늘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우호협력을 깊이 함은 물론, 세계 전체의 조화를 이어갈 것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장애인들의 화합 한마당

600여명 한마음 체육대회 · 문화행사 즐겨

전주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능의지를 높이기 위한 한비탕 화합축제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3일 전주시청 강당과 노송광장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들이 상호 친선과 화합을 도모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1부 개회식과 2부 체육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 개회식에서는 그간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해온 유공자

60여명에게 전주시장 표창과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전주시교육지원청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및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또, 각 장애인 단체별 장학금 총 10명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이날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국악공연과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으며, 장애인단체의 자기자랑에는 총 10개 팀이 참여해 모두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또한, 체육경기로 팔씨름과 훌라후프, 전자다트, 고리걸기, 윷놀이, 보치아, 디스크골프 등의 종목이 진행됐다. /김민근 기자

안호영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이 안호영(52·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회 회계 담당자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도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의 경우엔 회계책임자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스스

전주기전대, '교수 인권침해' 인권위 개선권고 '거부'

대기발령 교수의 연구실 출입 제한 등의 부당 조치를 개선토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전주기전대교과가 거부했다.

인권위는 대기발령 교수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 전주기전대 총장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책 수립을 학교법인 전주기전대학원 이사장에게 권고했으나 최근 불응용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주기전대 소속 A교수는 2009년부터 학생들과 함께 학교측의 사화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오다 애교심 하려, 입학모집 인원 감소 초래 등의 해교행위를 한 이유로 2011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됐다.

A교수는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재임용해야 했지만 A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된 점을 들어

신설학과가 개설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냈다.

A교수는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교수연구동에 출입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등록을 취소하고 학교교직원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학칙이 소송 중인 교원이라도 도서관·자가 등에서 학문을 계속 연구하라는 취지일 뿐 연구실과 학교 전산망 접속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사립학교 비리제보 관련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해 인권위 결정의 취지와 피진정인의 불응용 사유를 이날 발표했다. /이삼민 기자

장애인 폭행 시설직원 검찰송치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이 검찰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13일 폭행 혐의로 군산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이모(60·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A(53·여)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장의 부인인 이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된 다른 장애인들이 안정을 찾으면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해당 시설의 장애인 7명을 전원 조치하고, 절차에 따라 폐쇄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전주 서부신시가지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내년 6월까지 홍산비보이광장·비보이광장 중심 명품 보행로 만들어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보행자전용도로를 정비해 걷기 좋은 명품 보행로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총 16억여 원을 들여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노후화된 보행자전용도로를 걷고 싶은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보행자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홍산비보이광장과 비보이광장을 중심으로 십자형으로 조성된 총 길이 955m, 폭 6~10m의 보행자전용도로를 대상으로 환경 친화적인 투수블록과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고사한 수목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 벤치를 설치해 상업지역에 걸맞은 걷고 싶은 명품거리

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보행자 공간이었던 이곳에 불법 주·정차 등 차량 진입으로 보도가 파손되고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입부에 통서 벤치를 설치기로 했다. 또, 야간 경관을 고려해 벤치 측면에는 LED조명도 설치된다.

시는 이달 중 공사에 착수, 내년 5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에 보행자 명품거리가 조성되면 버스킹 등 각종 문화공연을 즐기기에 홍산라이프광장과 전주비보이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는 지난 2008년 6월 준공된 이후 보행자 도로 진입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훼손과 도로 노후화, 각종 폐자재 및 쓰레기 적치, 차량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해 왔다. 또, 배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여름철 물고인 현상도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해 반영했다. 또 경관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